

국내 최초! AI 몰입형 체험존 제작

AI+X 융합연구센터, 신기술 선보이다



▶들라날락 앞에서의 교수진

우리 대학 부설 연구소인 AI+X융합연구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이 적용된 AI 신기술 몰입형 체험존을 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디지털메우터 전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의 디지털 소외 계층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험존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 대학이 포함된 KCS 연합체와 부산광역시와 협력해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AI 신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체험존은 부산광역시청 내 들라날락에 '뇌파를 이용한 AI 신기술 몰입존'으로 설치됐으며, 7월 20일부터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체험 가능하도록 개설했다. 체험존은 CONNECT.it와 ExPLORE.it 총 2개로 운영된다.

CONNECT.it은 '사용자 집중력 향상을 위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반의 메타버스 트레이닝 시스템'이라는 이념을 중심으로 해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갖고 있는 뇌파 데이터를 Conv-LSTM 기반의 확신

모델로 만들어 피험자의 생각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대응하는 기술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체험존을 체험하는 관람객의 생각대로 방에서 열쇠를 찾아 탈출하는 발달출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됐다.

ExPLORE.it 체험존에서는 Chat GPT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휴먼 체험과 AI 가상 아이돌 및 AI가 제작한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체 체험 시간은 학습을 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으로 진행되며, 연령대에 맞게 3가지 버전으로 구성돼 있다.

박승민 AI+융합연구센터장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과 AI 몰입형 체험존을 결합해 국내 최초로 부산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부산 시민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연구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우리 대학 소프트웨어학과는 2019년부터 30대 AI SW 전공의 젊은 교수들 8명 일용하면서 빠르게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신기술 설명회

있으며, 2019년도 SW중심대학사업 선정, 21년도 학부생 연구(URP) 사업 AI 분야 전국 최다 선정 및 소프트웨어분야 최우수 대학 선정, 22년도 산업계관대협력평가 인공지능 분야 최우수대학 선정(교육부장관 상 표창) 등 부산의 AI 소프트웨어를 대표하는 연구소를 한국연구재단(교육부에 등재하며 AI+X 원천 기술을 연구 개발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를 작업한 AI+X는 AI-빅데이터와 타 학문(X)을 융합해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용어다. AI+X융합연구센터는 해당 연구를 위한 센터로, AI+헬스케어, 비전, MR, 보안, 에너지, 로봇 등을 연구하고 있다.

AI 전공 및 융합 교수 9명과 학생 연구원 약 1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AI+X 융합 연구 프로젝트, 현장 실습 지원, 전문가 특강, 코딩 동아리 등을 운영 중이다. 또 UIT과 8층 전층을 운영 중인 대규모 AI 연구소다. AI 휴머노이드, 홀로렌즈, 14채널 뇌파 측정 장비, AI 임베딩 시스템 등 최신 AI 연구용 장비를 마

련해 보다 고차원적인 연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센터는 총 10가지의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AI+X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는 신경망 기반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개발한다. ▲AI+Image 생성·변환 연구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생성과 변환 기술을 연구하며 ▲AI+Image 융합 연구는 이미지 데이터 기반의 딥러닝 기반을 적용한 이미지 생성 기술을 연구한다. ▲AI+에너지 융합 연구는 AI 기반의 에너지 관리 최적화 시스템을 연구한다. ▲AI+MR(VR/AR) 융합 연구는 안면 인식 기술 기반의 의료 정보 개인화 시스템을 개발한다. 외에도 ▲AI 기반 뇌공학 연구 ▲빅데이터 기반 정보 보안 연구 ▲AI+딥러닝 학습 데이터 분석과 문장-이미지 생성 연구 ▲AI+Computer Vision 융합 연구 ▲차세대 애니메이션 제작 공정 연구 등을 연구 방향으로 잡고 있다.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어린이를 위한 알차고 따뜻한 식사

해운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최우수센터 선정



▶연찬회에 참여한 센터 일원들

우리 대학이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해운대구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가 부산광역시 운영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센터로 선정됐다. 이에 해운대 아르피나에서 열린 '2023년 부산광역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에서 실시한 2022년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평가는 운영 성과 60점과 우수 사례 40점을 합산한 결과로, 부산광역시 14개 센터 중 최우수 1개 센터, 우수 2개 센터가 최종 결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해운대구 센터는 편식 개선 프로그램 '해라라 특화 사업'이 높은 점수로 평가돼 최우수상을 받았다.

'해라라 특화 사업'은 어린이 대상으로 편식률이 높은 채소들에 대해 푸드 브릿지 교육을 실시하고, 원장, 교사 및 부모를 대상으로 편식 아동 식사 지도법을 교육하고, 자체 개발한 레시피를 제공하며 온라인 쿠킹 클래스를 운영해 자연스럽게 어린이 편식을 예방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운대구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는 2013년에 개소해 2020년부터 우리 대학이 위탁 운영 중이다. 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위생 및 영양 관리, 식단 및 레시피 제공, 급식 컨설팅, 대상별 식생활 교육 등 현장 맞춤형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2022년 하반기부터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 급식팀을 만들어 노인 영양 및 돌봄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건강한 급식 및 개인별 맞춤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현숙 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해운대구 센터가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고 자랑스럽다. 이번 수상은 해운대구 센터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수고해 준 덕분"이라며, "90회 이상의 어린이 교육과 12종의 레시피 개발 및 조리법 동영상 제작, 그리고 편식 교육용 지도안을 개발했다. 우리 센터는 앞으로도 특화된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지역 사회의 취약 계층을 위한 급식 지원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ESG 트렌드 반영한 아이디어로 대회를 휩쓸다

2023 ESG 콘텐츠 아이디어톤 서울중구청장상 수상



▶우리 대학 대회 참가 일원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이 서울특별시 중구 일대와 동국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 ESG 콘텐츠 아이디어톤' 대회에서 대상인 서울중구청장상을 수상했다.

해당 대회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우리 대학을 포함해 ESG 대학 연합 소속 8개 대학인 경남대, 계명대, 대전대, 동국대, 제주대, 한림대, 호남대 LINC 3.0 사업단이 주최했으며, 동국대, 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국인쇄연대(라운그룹 사회적 협동 조합)이 주관했다.

서울 중구 도심의 인쇄 산업에 필요한 산업 인력의 유인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 시의 하나로 마련됐다. 대학, 지자체 등

산학관이 연대해 인쇄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를 제품화 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모전은 플라스틱 대체 상품, 재활용 상품, 재생용지 소재 상품 등의 ▲종이를 활용한 친환경 상품 아이디어, 인쇄 및 봉제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자투리를 활용한 상품, 재활용을 방해하는 코팅을 지양하고 친환경 잉크를 사용한 상품, 쉬운 분리수거를 위해 부속물을 종이로 대체한 상품 등 ▲ESG 반영 인쇄 제작물 및 인쇄 기법을 적용한 굿즈 상품 아이디어, 중구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친환경 홍보 상품 아이디어, 인쇄 중구 도심 산업에 기반한

아이디어 등의 ▲ESG 반영 중구를 담은 홍보 굿즈 상품 제안까지 총 세 가지 공모 주제 아래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ESG 대학 연합은 지역 사회 공헌 연구회가 ESG 관련 산학연 협력을 위해 2022년 새롭게 발족한 전국 LINC 3.0 사업단 협의체다. 2017년부터 지역사회 공헌과 ESG 연계 캠퍼스 디자인 페어 9회, 아이디어톤 6회, 연구회 세미나 30회 등 지속적으로 ESG 기반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 엘지아트 팀은 인쇄 및 봉제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종이를 재료로 활용해uzzi로 골목 분위기를 집

에서도 즐길 수 있게끔uzzi로 가게 콘셉트의 무드등과 술잔 수납함 굿즈를 아이디어로 제안했다.

황기현 LINC 3.0 사업단장 겸 공유 협업센터장은 "지자체 협력을 통해 ESG 콘텐츠 아이디어톤을 개최해 참여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현황과 ESG 관련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에 관심 있는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학생들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제품화 돼 학생들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관광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다

DX시대 관광분야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



▶세미나 참여 일원

우리 대학은 LINC 3.0 사업단이 최근 2주에 걸쳐 ▲카지노 ▲항공 ▲호텔 ▲MICE ▲관광벤처 등 6개 관광산업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DX시대 관광분야 산학협력 인력양성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 산업을 이끌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교육은 DX투어리즘 ICC의 참여학과인 관광학부가 주도해 우리 대학 선택캠퍼스에서 개최됐다.

DX시대 관광 분야 산학 협력 인력 양성 교육은 국내 관광에서 국제 관광으로 전환되고 있는 관광 산업의 변화와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했다. 또 국제 관광의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인력의 이직으로 현재 부족한 인력 보충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파라디스카지노 전담본부장은 '관광산업과 카지노'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포유커뮤니케이션즈 신민화 이사는 'MICE 산업의 이해'에 대해 ▲에어부산 이동원 팀장은 '2023 항공

시장 전망' ▲더휴림 지정인 대표는 '관광벤처 기업 가능성' ▲파크아웃트호텔의 정민경 팀장은 '서비스산업의 최신 트렌드' ▲한국관광공사 박성중 부산출산지사장은 '개업체인저로 가는 길'을 강연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번 교육의 총괄 기획을 맡은 DX투어리즘 ICC 성은희 센터장은 "각 관광 산업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래가 밝은 관광 산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계 교육 과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황기현 LINC 3.0 사업단장은 "동서대는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으로서 디지털 전환시대 관광 산업의 발전과 부산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해 지역사회와 공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가까이서 보고 멀리 바라보다

현장과 연계된 새로운 교육 방식 선정



▶예비예술인 현장 연계 지원 사업 선정

우리 대학은 지난 22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인 '예비 예술인의 현장 연계 지원 사업(이하 2023 예비 예술인 현장 연계 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우리 대학의 뮤지컬 엔터테인먼트학과는 '2023 예비 예술인 현장 연계 지원 사업'에 교내 가상기업(IFS-In School Field system)으로서 '동서 뮤지컬 엔터테인먼트 설립을 통한 예비 예술인 현장 연계'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이에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최고 지원금인 2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올해 신설된 '2023 예비 예술인 지원 사업'은 민간예술 단체, 문화 관련 재단, 공연장, 전시장 등 다양한 현장 단체들과 협력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을 받는 예비 예술인에게 창작, 실연, 기획, 기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하게 한다.

특히 예비 예술인들의 성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31건이 접수돼 38건이 최종 선정

된 것이다.

우리 대학 뮤지컬 엔터테인먼트학과와 교내 가상 기업은 '동서 뮤지컬 엔터테인먼트(www.ds musicalent.com.)'라는 이름으로 '인터파크 시어터', '샘 컴퍼니', 'EMK 뮤지컬컴퍼니', '신시컴퍼니' 등 뮤지컬 전문 기업들과 제휴를 맺게 됐다.

이로써 여름방학 동안 기업탐방, 캠퍼스, 필라테스, 보컬 특강 등 비교과 집중 특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창작 뮤지컬 '하트 스트링스', '리멤버 1919' 등의 정규 공연을 진행함과 동시에 뮤지컬 '외로운 성', '축석산성 아리아', '주문을 잊은 식당' 등 지역 기업과 연계하는 공연을 제작하고, 공연을 진행해 현장 실습과 동시에 단원들의 프로 무대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단장의 직무를 맡은 뮤지컬 엔터테인먼트학과 학과장 오세준 교수는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과 지역 정주형 인력 양성 및 중앙 무대로의 현장 연결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산학 교과목 개설, IFS 기업 연계



▶우리 대학 뮤지컬엔터테인먼트과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은 물론 가상기업 설립을 통해 표준 계약서 작성 및 예술인 고용 보험 가입 등 현장과 동일한 시스템의 체계를 통한 졸업 후 현장 진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 뮤지컬 엔터테인먼트학과는 2000년에 국내 최초로 설립된 4년제 정규 대학 뮤지컬과로 2024년부터 '뮤지컬엔터테인먼트'로 명칭을 변경하고 뮤지컬 연기전공과 스태프 전공을 신설해 모집하게 된다.

특히 엔터테인먼트로서의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고 K-POP 엔테테이너와 지도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며 뮤지컬이 갖고 있는 춤, 노래, 연기예술 분야의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1세대 안무가 서병구, 스크린과 무대를 장악하는 배우 성기운, 배우 오세준을 비롯해 연출가 이재은, 최민우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뮤지컬계의 가라성 같은 예술가들로 교수진들이 구성돼 있어서 다양성과 개성을 겸비한 후배 예술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박상욱 기자
더불어 발레과 무용을 전문적으로 연구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하신 전문 코칭 강사들을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유학한 국내 최고의 성악 전문 교수님들이 국내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1:1 레슨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컬을 비롯한 인성과 가치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부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센텀시티에 위치하고 있어 해운대에서 차량으로 약 15분, 벡스코(BEXCO)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으며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로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캠퍼스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영하의 전달과 KNN 방송국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심형 예술 대학이다.

여기다가 1000석 규모의 소향씨어터와 200석 규모의 실험극장, 150석 규모의 민석 소극장을 비롯해 5개의 대형 실습실, 12개의 개인 피아노 연습실 등의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국내를 대표하는 도심형 예술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정진하다

11개의 Winner로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우다



▶독일 레드닷 어워드(Reddot Award)에서 총 11개의 Winner를 수상

우리 대학은 이번 2023년 레드닷 어워드(ReDDot Award)에서 총 11개의 Winner를 수상하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썼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수상 작품들 중에서도 'Amazon Smile Tape' 작품(강소연, 강보민, 강정음, 배재양, 김효빈 학생 참여)은 Winner 수상작 중 상위 1프로 에게만 수여하는 Best of the Best에 선정됐다는 것이다.

우리 대학은 이로써 4년 연속으로 Best of the Best를 수상한 작품이 나오는 쾌거를 이뤘다.

또 지난 9년 동안 총 39개의 작품이 WINNER로 선정되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도 없을 엄청난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는 1955년 독일 베를린에서 시작돼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큰 규모를 가진 권위 있는 대회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로 이 대회의 목적은 디자인에서 걸출한 양질의 작품에 명예를 수여하는 데 있다.

이 엄청난 대회에서는 1955년부터 수많은 디자이너 및 제조업자들이 해마다 열리는 이 대회의 우승자 선출에 지원해왔다.

특히 이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국제적으로 전시하기 위해 레드닷 디자인 뮤지

움에 전시되는 영광을 가지게 된다.

광고와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이려면 평생 꼭 한 번이라도 Winner로 선정되고 싶어 하는 공모전이 바로 레드닷 어워드다.

이번 2023년 공모전에는 전 세계에 있는 약 50여 개 국가에서 약 8,000여 개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를 세계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21명이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는 것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위 수상작들은 우리 대학의 대학 혁신지원 사업단을 비롯해 SW 중심대학 사업단, LINC3.0사업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우리 대학에 있는 융합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이데이션 융합 실습' 수업과 '창의적 문제 해결' 수업의 결과물들이다.

수상작품은 2023/2024년 Reddot Brand & Communications Yearbook에 등재되고 On Line과 상시 전시를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된다.

Best of the Best 작품은 독일 베를린 레드닷 전시관에 영구히 전시된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과 갈라쇼 및 수상작 전시회는 11월 3일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이고 수상자는 베를린 시상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배움에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팀 활동을 통한 소통과 역량을 키우다



▶2023 해외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

우리 대학 SW 중심대학 사업단은 이번 5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ICCAS 2023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성황리에 마무리를 지었다.

'ICCAS 2023 해외 교육 프로그램'은 국내의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참여 대학의 학과 학생과 유럽 대학의 대학(원) 생과의 교류를 통해 소프트웨어 사고를 확장하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실무에 기반한 경험을 지식 습득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엔 개최된 'ICCAS 2023 프로그램'은 충북대학교, 인제대학교, 원광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와 우리 대학이 함께 참여하며 국내에서 3개월에 걸친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5월에서 6월 사이에서는 온라인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각 팀별로 미팅이 이뤄졌다. 이어서 7월 26일부터 8월 4일 사이에서는 오프라인 상으로 몰입교육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8월 13일부터 20일

까지 독일 뮌헨에서 교육이 이뤄졌다.

이는 팀 프로젝트를 통한 개발과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를 준비한 후 독일 뮌헨 현지에서 열리는 학회에서 발표를 진행하는 교육으로 구성됐다.

우리 대학에서는 강정무 학생(소프트웨어학과 3학년), 김정환 학생(소프트웨어학과 3학년), 최지웅 학생(소프트웨어학과 3학년), 하정훈 학생(소프트웨어학과 4학년)을 비롯해 총 4명을 선발했다.

앞서 선발된 학생들은 더 대학 학생들과 팀을 구성해 3개월 동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으로 Unity와 함께 Life health에 관련된 사전 교육을 받았고,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EK(Europe-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2023'에 논문을 투고하고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ICCAS 2023' 개최식에서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독일 뮌헨 무역관장인 김영재 관장이 독일의 역사, 경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특강을 진행했으며



▶EKC 2023 포스터 세션 발표 현장

독일 최대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Infineon(인피디온) 김도형 이사가 반도체 산업과 향후 해외 취업에 대한 방향성과 전망에 대한 특강이 열렸다.

또 유럽에서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 공동체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로, 인간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인 적정기술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그리고 개최식에 참가한 학생들이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영어로 발표를 진행하고 참석된 많은 전문가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 3개월간 수행한 팀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시간도 거쳤다.

더불어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독일의 대표기업 프리미엄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조사 겸 구동 경제 서비스 회사인 BMW(Bayerische Motoren Werke)의 museum과 welt를 방문해 긴 시간 동안 독일의 산업 발전에 대한 변화와 트렌드, 향후 방향성 등을 알아보는 산업체 현장 견학도 이루어졌으며 이후 팀별로 수행한 프로젝트 내용을 EKC 2023 포스터 세션에서 발

표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프트웨어학과 3학년 강정무 학생은 "사전 교육이 너무 힘들었지만 타 대학 학생들과 팀으로 활동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이 너무 재미있었고, 특히하게도 이번 기회를 통해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게 됐"이라며 "또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독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귀중한 경험도 얻을 수 있어 매우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학생들을 인솔한 이상걸 교수는 "학생들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많이 고생했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 참석을 통해 SW 전공과 더불어 글로벌 역량 성장을 도모하고 한국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독일의 문화에 대해 알게 되는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건학 이념을 재능으로 표현하다

무더운 날 봉사를 통해 건학 이념 실현



▶DMZ 해마루촌 디자인 예술마을 만들기

우리 대학의 디자인대학 학생들이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 마을에서 여름 봉사활동이 3년 만에 재개됐다.

지난 8일 우리 대학 퍼블릭디자인연구소 연구원 5명과 디자인대학 학생 17명은 지난 28일부터 6일까지 경기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해마루촌에서 공공디자인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들 참여 학생들은 올해를 <DMZ 해마루촌을 다시 봄> 주제로 마을의 노후된 시설들을 돌아보고 올해의 작업 내용과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목록을 만든 후 첫 작업으로 마을과 논의했던 포토존의 개선 작업을 수행했다.

2019년 마을의 요청으로 제작된 포토존은 목재로 제작돼 이미 시효가 지나 낡아 많이 훼손됐지만, 방문객들에게는 인기 장소로 인지되는 상황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장님과의 논의를 통해 리뉴얼을 결정했고, 기본 틀을 부산에서 제작해 이동했다.

제작된 철재는 3미터 폭 8개와 워드보드(word board) 33개다. 베이스로 제작된 폴라 보드에 여러 기법으로 페인팅하는 작업을 철하고 말리고 다시 칠하는 작업과 수많은 리더링을 머무는 동안 지속해서 작업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디자인대학 내 시각 전공, 제품 전공, 건축 전공이 참여하는 협업 작업으로 서로의 작업을 크리틱하

고 급한 작업에는 손을 보는데 시간의 반 복으로 활동자들은 잊을 수 없는 작업의 시간을 공유했다.

원료한 작품은 2019년의 메시지와 부가된 내용을 더해 제작을 완료했으며 마을 입구에도 추가 설치해 마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진행된 개인 창작 작업인 '물뿌리는 더운 날' 전시를 위해 주제 작업을 하며 틈틈이 개인 작업 활동을 해, 주 작업과 동시에 완성하고 전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늦은 시간에 마친 조형물을 본 주민들은 함박웃음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해마루촌은 전쟁 후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에 조성된 자연경관과 생태가 잘 보존된 마을로 60가구가 살고 있으며 2011년 우리 대학과 해마루촌은 자매결연을 통해 현재까지 밀접한 관계를 이어오며 마을을 디자인과 예술이 느껴지는 장소이자 생태 정원으로써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본 사업은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의 'DSU 지사학 상생 프로그램' 지원과 해마루촌 마을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협업 기업의 다각적인 협력과 더불어 대학의 디자인 재능 봉사로 완성된 의미 있는 프로젝트다.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예체능은 우리 대학으로!

2024학년도 동서진로진학박람회



▶체육학과 융합스마트미래센터

우리 대학에서 '2024학년도 동서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했다.

진로진학박람회란 우리 대학 입학처에서 직접 시행하는 입시설명회 프로그램으로, 직접 신청을 받은 인원을 토대로 진행된다. 이 박람회는 지난 2023년 7월 20일, 13시부터 17시까지 개최했다.

프로그램 대상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학부모, 현직 고교 교사 등으로, 이번 진로진학박람회를 통해 올해 대입 특징을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정보 제공 ▲진로 관련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 체험 제공 ▲고교 생활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고민 해결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진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 목표를 다지고자 했다.

우리 대학의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수시 모집은 작년과 달리 변동 사항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신설 학과다. 2024학년도부터 새로 개설될 '디지털금융학과'는 우리 대학과 부경대가 공동 학위제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각 대학별로 20명씩 모집하며 총 40명의 인원을 선발한다. 두 대학을 오가

며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졸업 시 두 대학의 졸업장 취득이 가능하게 했다. 두 번째로 전형별 반영 비율이 변경됐다. 학생부종합전형과 SW융합인재 전형에서 학생부 60%와 면접 40%로 인원을 선발했다면,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선 학생부 100%로 인원을 선발한다. 면접을 보지 않고 오로지 서류만으로 인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세 번째로 2024학년도부터 학부 선발이 시행된다. 우리 대학 측에선 학부로 합격해 입학 전에 100%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한다. 2023학년도에는 학과 선발로 인원을 모집했다면, 올해부터는 하나의 학부에 지원해 입학 전에 학과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외 작년과 달리선 점으로 학과 명칭 변경과 실기고사 종목 변경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모집 요강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4학년도 진로진학박람회의 프로그램은 총 4개로 구성됐다. ▲대입설명회 프로그램은 '2024학년도 동서대학교 대입전형 설명회'가 소항아트홀에서 진행됐고 ▲학과 체험관 프로그램은 '학과체험 및 학과 상담'이 학과별 부스에서 ▲대입상담 프로그램은 '부산교육청 진학지원단 및 경남교육청 진학지원단 상담교사와의 1:1 학생 맞춤형 대입상담'을 위해 상상 스퀘어에서 이뤄졌다.

또 예체능계열 특강 프로그램은 '예체능 계열 학과 체험 및 시설 투어'를 위해 다른 학과와는 달리 학과 체험 부스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 각 학과 강의실 및 시설에서 진행했다. 우리 대학 예체능 계열 관련 학과로는 ▲미디어콘텐츠대학의 게임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웹툰학과 ▲마이크로소프트융합대학의 운동처방학과, 체육학과 ▲디자인대학의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학과 ▲입문태권위에속대학의 영화과, 뮤지컬과, 연기과가 존재한다. 우리 대학은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시설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동서대학교 선텀캠퍼스

체육학과와 융합스마트미래센터는 '부산교육청 진학지원단 및 경남교육청 진학지원단 상담교사와의 1:1 학생 맞춤형 대입상담'을 위해 상상 스퀘어에서 이뤄졌다.

또 예체능계열 특강 프로그램은 '예체능 계열 학과 체험 및 시설 투어'를 위해 다른 학과와는 달리 학과 체험 부스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 각 학과 강의실 및 시설에서 진행했다. 우리 대학 예체능 계열 관련 학과로는 ▲미디어콘텐츠대학의 게임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웹툰학과 ▲마이크로소프트융합대학의 운동처방학과, 체육학과 ▲디자인대학의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학과 ▲입문태권위에속대학의 영화과, 뮤지컬과, 연기과가 존재한다. 우리 대학은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시설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체육학과와 융합스마트미래센터는 '부산교육청 진학지원단 및 경남교육청 진학지원단 상담교사와의 1:1 학생 맞춤형 대입상담'을 위해 상상 스퀘어에서 이뤄졌다.

이 센터에 존재하는 Self-Check-Zone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현장 및 수업에서 어떤 실기 능력을 스스로 확인해 보며 보완할 수 있다. 그 밖의 많은 자세한 사항은 동서대학교 체육학과 사이트 강의실 소개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부산 해운대 영화 중심지인 선텀캠퍼스에 위치한 우리 대학 부속 캠퍼스인 '선텀캠퍼스'에도 예체능 계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선텀캠퍼스는 영화의 전당,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산업센터 등 최대 영화·영상 산업 밀집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최적의 교육 환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영화·공연예술 분야 특화 교육 위한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선텀캠퍼스에는 입문태권위에속대학의 영화과, 뮤지컬과, 연기과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해당 캠퍼스 내에는 국내 최고의 교육 시설과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부산 영상 콘텐츠 분야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또, 작곡 수 1,126곡의 소항뮤지컬씨어터를 개관해 초 대형 뮤지컬을 지속적으로 공연하고 있는 부산 뮤지컬 대표 극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은영 수습기자

감독이라는 꿈에 가까워지다

독립예술영화 단편 부문서 1,600만 원 제작 지원 선정



▶영화 촬영 중인 이진호 학생의 모습

우리 대학 영화학과 4학년 이진호 학생이 '2023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단편 부문'에 최종 선정됐다.

이진호 학생은 거짓말을 하면 '코' 대신 '숨소리'가 커지는 어느 현대판 괴담 이야기인 <괴담괴담> 작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지원한 바 있다. 이 작품은 해당 위원회에서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금액은 상당 1,600만 원의 제작 비용이 지원된다.

올해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단편 부문에서는 총 542편의 작품이 지원됐다. 작품을 심층 있게 심사하기 위해 각각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류 심사의 심사위원으로는 영화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감독, 작가, 제작자, 평론가, 영화계 및 학계 등으로 구성됐다. 서류 심사는 한 달간 진행됐는데, 지원한 시나리오의 작품성 및 참신성, 제작 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충실도 및 타당성을 심사위원들이 면밀히 평가했고, 총 54편이 본심에 오르게 됐다.

본심에 오른 작품을 통해 면접 심사위원들은 4월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당시 기획 의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질문과 제작진에 대한 신뢰도를 포함한 영화 완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46개 작품에

총액 47억 5,800만 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원했다고 한다. 올해 출품작들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사회적 상황과 조건들이 젊은 영화인들에게 장려적 상상력을 확장시킨 긍정적 신호로 해석됐다고 한다.

해당 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단편 부문'은 2013년도부터 시행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지원 사업 시행 의의는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영상물의 창작 지원을 통한 영화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국내 영상 제작 환경의 다변화, 활성화에 도모함에 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란 대한민국 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영화에 관한 지원 역할을 위임받아 한국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1973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이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영화계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9인의 위원(상임 위원장 1인, 비상임 위원 8인)과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문화포털 ▲한국영상자료원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경영개선 신고센터 ▲문화가 있는 날 등이 함께하고 있다.

정은영 수습기자

창업에 한 걸음을 더 내딛다

2023 PASTEL Convergence 창업캠프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캠프 참가자들의 단체사진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은 '2023 PASTEL Convergence 창업캠프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지난 6월 22일과 23일 걸쳐 소노캄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이 캠프는 창업에 관심 있는 우리 대학 재학생 24명이 참여해 '실전으로 이어지는 창업오디션: 아이디어톤 캠프'를 주제로 (주)워너비즈와 함께 진행했다.

해당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성적 유형 검사인 ▲DISC를 알아보는 창업 마인드 ▲Idea 인터랙!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서에 관해 알아보는 창업과 관련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스타트업의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피치덱 레벨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돼 학생들이 창업이라는 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경험이 됐다.

1박 2일간 진행돼 참여 학생들은 이를 통해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계획서 도출, 3분 IR 아트를 구성 등을 할 수 있었다. 각 분야별 맞춤형 멘토를 통해 창업 프로세스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창업에 실질적인 관심을 갖는 기회를 가진 시간이 됐다.

또한 해당 캠프에서 일부 참여자들을 선발해 시상도 하고자 했다.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연계해 최우수상 1팀(윤준영 외 1명), 우수상 1팀(장시훈 외 2명), 장려상 1팀(박재이 외 2명)을 선발해 시상했다. 이번 캠프는 참가자들이 창업의 주요 과정을 더 쉽고 즐겁게 경험하도록 구성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행사가 됐다.

우리 대학은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창업지원단, PASTEL 창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창업과 관련한 여러 정보와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참고할 수 있다. 창업 공지 항목에서 창업 관련 프로그램 모집 공고와 교육 수강생 모집공고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창업과 관련된 고민을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는 창업상담 항목도 존재하며, 창업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창업 교육 로드맵도 나와 있기 때문에 창업을 위해 어떤 수업과 프로그램을 듣는지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또 홈페이지에서 실험실 창업 지원센터인 DSU Lab Startup Platform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센터는 인공지능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활동 중인 참가자들의 모습

를 위한 교육, 나만의 인공지능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만들기, 기초부터 실무까지 탄탄하게 설계된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을 꿈꾸는 우리 대학 학생이라면 창업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인 '드림이밸리(Dream Engineering Valley)'에 입주로 할 기회도 얻을 수 있다. 해당 건물은 1999년에 개소했으며, 2021년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BI 리모델링 지원 사업" 선정으로 보육실 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바 있다.

드림이밸리에서는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한다.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비, 지식 재산권 취득비, 홍보비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 대학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된 '2023 PASTEL Convergence 창업캠프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학협력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깊었으며, 향후에도 기술 기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영 수습기자

■ 취업 책 소개 - 방송영상학과

단순하지만 강력한 글쓰기 원칙



▶기자의 글쓰기

을을 간략해서 문장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은 짧아야 한다. 글을 읽을 때 눈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하다. 세 번째, 글은 팩트(Fact)다. 주장은 팩트와 사실로 포장해야 한다. 이렇게 3가지 원칙을 유념해 글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글쓰기 원칙 다음으로 글쓰기 원칙을 설명한다. 박종인 기자의 글쓰기 원칙이 적혀 있고 요점이 정리돼 있다. 그 글들은 수년간의 고민과 깨달음이 간략히 설명돼 있다.

"독자를 상대로 글을 쓰는 사람이란 좋은 글쓰기에 대해 고민하는 해야 한다", "고민하는 목적은 독자를 감동시키기 위함이고, 고민하는 대상은 좋은 글을 구성하는 원칙이다"라는 문장이 있다. 글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고민은 결국 독자를 위한다고 이 책에선 말한다. 불분명한 글, 결론이 없는 글은 오히려 독자들의 짜증만을 돋우기에 명확한 팩트로 구성된 글을 배울 때도,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도, 내가 들어갈 직장에서도, 때로는 생각 정리할 때도 말이다.

당신은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가? 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읽는 사람이 편한 글쓰기는 어떤 글쓰기일까? 박종인 기자가 저술한 <기자의 글쓰기>에서 그 방법을 찾아냈다. 이 책에선 글쓰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준다. 어떤 글이 독자의 재미를 유발하는지, 어떻게 글을 써야 가독성이 좋아지는지, 재미있는 박종인 기자의 문장들을 보며 '글쓰기란 이런 것이구나'를 느낄 수 있다. 글쓰기가 아주 단순하다고 강조한다. 쉽고 단순한 글쓰기를 위해 저자는 글쓰기에 대한 기본 원칙과 원리를 알려 준다. 또 예시문을 주고, 읽고, 분석 편으로 나눠 예시문을 통해 잘못된 글쓰기의 방식을 깨닫고 더 깔끔한 글쓰기 방식을 독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글쓰기에 3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 글은 쉬워야 한다. 조사 사

정은영 수습기자

책 속의 풍경 -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경제학의 기본원리부터 자본주의의 미래까지



- 책 제목 :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책 저자 : EBS 자본주의 제작팀
- 출판사 : 가나출판사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막아둔다. 현대인의 일상엔 '금융'과 관련 없이 살 수 없는 관계가 됐기 때문이다. 금융은 무조건 어려운 것이라 생각했던 나는 경제와는 담을 쌓고 살아왔다. 아마 나 같은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는 늘 침체됐다는 소식과 물가는 또 올랐다는 뉴스를 보니 더 이상 외면하면서 살 순 없을 것 같다. 금융도 이제 일반 상품처럼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상품이 됐다. 금융과 연결돼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나처럼 경제의 '경' 자도 모른다면 이 책을 읽어 볼 것을 추천한다.

이 책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 먼저 설명한다. 이를 알기 위해 왜 볼 수 없는 내리막 오르기만 하는지 알아야 한다. 사실 물가가 오를 때마다 우리는 물가가 내리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마치 지금의 짜장

면은 9천 원까지 올랐지만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5천 원 정도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다. 하지만 물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 오르거나 떨어질 때 내려가지는 않는다. 도대체 자본주의는 어떤 시스템이길래 물가는 오르거나 하고 절대 내릴 수 없는 걸까? 그 이유는 돈의 양이 계속 팽창하기 때문이다. 돈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나은 경제 상황이 될 것만 같다. 하지만 오히려 더 큰 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왜일까? 이유를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읽어 보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점들을 하나씩 풀다 보면 은행이 어떤 곳인지도 알게 된다. 은행에 가면 카운터에 계산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다. 정말 나를 생각해 주고, 나의 자금이 조금도 손해 보지 않게끔 해 줄 것 같다. 하지만 은행은 우리가 맡긴 돈을 잘 보관해 주는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빌려준다. 많은 사람이 한날 한시에 자신의 예금을 단번에 찾지는 않는다. 그것을 전제로 하여 은행의 예금 잔고는 지금쯤 조금만 남기고 다 대출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은행이 내게 잘 친절하리라고 생각했던 내게 적잖이 충격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이야기였다. 이 책에선 "은행은 그저 기업일 뿐이다. 은행은 당신의 친구도 아니고, 조력자도 아니며, 이웃도 아니다. 그저 당신에게 금융 상품을 팔고, 그것으로 수익을 올리면 되는 회사일 뿐이라는 이야기"라는 말로 우리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한다.

또한 무조건 수익이 보장된다고 자부하는 상품에 속지 않도록 재테크 이면의 진실엔 무엇이 있는지, 고객을 향한 속셈부터 보험은 어떤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이득인지 자본주의 체제하에 살아가는 누구든 꼭 알아야 할 조건을 담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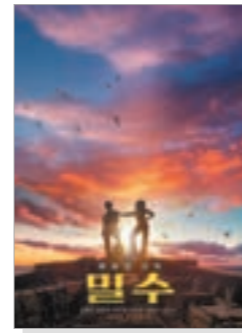
다. 이를 읽은 후 보험이나 은행에 가면 사투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어려운 은행에서의 대출, 투자상품 뿐만 아니라 소비에 있어서도 이 책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는다. 아기는 한살이 넘으면 이미 100개 이상의 브랜드를 기억한다. 마트에 가면 나도 모르게 시계방향과 반대로 좌회전을 하고 있고, 쇼핑 카트는 점점 크기가 커지고 있다. 또 시식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획이 없던 다른 물건들까지도 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머릿속 무의식으로 들어와 싶지 않은 다가오는 마케팅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다. 그렇다면 나는 알맞게 소비하고 있는 걸까? 받는 소득에 비해 얼마나 써야 알맞은 소비라 할 수 있을까? 내 소비 습관을 체크해 볼 수 있고, 자신을 지키며 행복하게 소비하는 방법 또한 가르쳐 준다.

이 책은 2013년에 출간된 책으로 최근에 출간된 책은 아니다. 그런데도 읽으면서 지금의 사회현상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가 돌아가는 현상은 같다. 불고 먹고 살기 쉬운 시대는 잘 오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부자를 꿈꾼다. 요즘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나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뒤늦게 기술을 배우기에 앞서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재테크 방법, 투자 방법 등을 익히기 전에 먼저,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 원리, 돈이 어떤 방식으로 흐르고 부가 창출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자본주의의 전체적인 흐름과 경제학의 기본원리,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조심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정연어 수습기자

이달의 영화 - 밀수



- 영화 제목 : 밀수
- 영화 감독 : 류승완

우리는 남이지만 가족과 다름없는 사람을 인생에서 만나곤 한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가? 영화 <밀수> 작품 속 여자들의 우정과 사랑에 초점을 맞춰 감상해 봤다.

배를 몰고 있는 진숙의 아버지, 닦을 내리는 사람, 그리고 물질을 하러 들어가는 해녀들. 해녀들은 비단속으로 뛰어 들어 해산품을 채취한다. 조금 이따 들려오는 숨소리. 해녀들은 1~2분간 수심 10m까지 잠수하며 참았던 숨을 휘파람같이 '호오이' 하며 내뿜는다. 그러나 화학공장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해산품을 채취할 수 없게 된다.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해녀들은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한 소문을 통해 밀수의 세계를 알게 된다.

승부사 '촌자' (김혜수)는 해녀들의 리더이자 자신의 절친인 '진숙' (염정아)에게 솔직한 제안을 한다. 관세를 피하기 위한 물건 또는 수입과 유통이 금지된 물건이 던져진 바다에서 그것을 건져 올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숨비소리와 사랑

되는데, 그렇게 그들은 밀수라는 세계에 빠져든다.

평소처럼 물질하던 와중, 관세 경찰들이 갑작스럽게 도착해 된다. 그 과정 중 배에서 일하던 동료와, 그 배의 선장이던 '진숙'의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 그 틈을 타 물러 빠져나온 '촌자'는 밀수품들을 서울에서 물러 파는 상인이 된다.

불가피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진숙의 아버지 대신에 닦을 내리고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던 '장도리 (박정민)'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밀수로 큰 돈을 벌게 된다. 한편, 촌자와 진숙이 함께 물질했던 군전에서 촌자의 소문은 안 좋게 퍼지는 데... 경찰에게 잡혀 옥살이를 하게 된 진숙은 경찰들이 딱친 당시 물러 빠져나갔던 촌자의 외모로 자신이 감옥에 들어갔다 생각해서 원한을 품는다.

촌자는 서울에서 밀수품을 몰래 장사하다가 전국에서 밀수로 유명한 밀수왕인 '권 상사' (조인성)에게 걸리게 된다. 밀수품에 대한 빛을 권 상사에게 지게 된다. 빛을 갚는 방안은 바로 자신이 물질했던 군전 바다에서 밀수품을 채취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촌자와 진숙은 3년 만에 재회하게 된다.

그러나 촌자가 군전에서 돌아간 이유에 다른 계획이 생긴다. 바로 자신의 옛 친구를 되찾는 것.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상황에 실지어 살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한 소문을 통해 밀수의 세계를 알게 된다.

승부사 '촌자' (김혜수)는 해녀들의 리더이자 자신의 절친인 '진숙' (염정아)에게 솔직한 제안을 한다. 관세를 피하기 위한 물건 또는 수입과 유통이 금지된 물건이 던져진 바다에서 그것을 건져 올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그들은 밀수라는 세계에 빠져든다. 평소처럼 물질하던 와중, 관세 경찰들이 갑작스럽게 도착해 된다. 그 과정 중 배에서 일하던 동료와, 그 배의 선장이던 '진숙'의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 그 틈을 타 물러 빠져나온 '촌자'는 밀수품들을 서울에서 물러 파는 상인이 된다.

불가피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진숙의 아버지 대신에 닦을 내리고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던 '장도리 (박정민)'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밀수로 큰 돈을 벌게 된다. 한편, 촌자와 진숙이 함께 물질했던 군전에서 촌자의 소문은 안 좋게 퍼지는 데... 경찰에게 잡혀 옥살이를 하게 된 진숙은 경찰들이 딱친 당시 물러 빠져나갔던 촌자의 외모로 자신이 감옥에 들어갔다 생각해서 원한을 품는다.

촌자는 서울에서 밀수품을 몰래 장사하다가 전국에서 밀수로 유명한 밀수왕인 '권 상사' (조인성)에게 걸리게 된다. 밀수품에 대한 빛을 권 상사에게 지게 된다. 빛을 갚는 방안은 바로 자신이 물질했던 군전 바다에서 밀수품을 채취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촌자와 진숙은 3년 만에 재회하게 된다.

그러나 촌자가 군전에서 돌아간 이유에 다른 계획이 생긴다. 바로 자신의 옛 친구를 되찾는 것.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상황에 실지어 살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한 소문을 통해 밀수의 세계를 알게 된다.

승부사 '촌자' (김혜수)는 해녀들의 리더이자 자신의 절친인 '진숙' (염정아)에게 솔직한 제안을 한다. 관세를 피하기 위한 물건 또는 수입과 유통이 금지된 물건이 던져진 바다에서 그것을 건져 올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정연어 수습기자

다가오는 AI 시대에 변화와 대비책

우리가 '놀라운' 신기술 시대를 목격하고 있다



▶ 빌 게이츠



▶ 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현재 AI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 빌 게이츠와 오픈 AI의 창립자 샘 알트만이 AI가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각자의 생각을 밝히며 주목받고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은 현지 시각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AI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게시글을 올려 AI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빌 게이츠는 AI를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 발전으로 평가했다. 또 "AI는 사람들이 일하고, 배우고, 여행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모든 산업이 이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기업은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다"고 말하며 사회에서 AI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AI를 통해 세계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빌 게이츠가 주목한 분야는 의료와 교육 분야다. 의료 분야에서는 보험금 청구, 서류 처리, 방문 기록 작성 등 단순 업무를 AI가 처리하며 의료 종사자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5세 미만 사망자의 대다수가 발생하는 저소득 국가에서 의사를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AI의 도움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빌 게이츠는 "AI는 치료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의료 혁신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가속화할 것이다. 차세대 도구는 훨씬 더 효율적이며 부작용을 예측하고 부작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의료 AI에 대한 신중한 서비스와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앞으로 5~10년 안에 AI 기반 소프트웨어가 사람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을 혁신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AI는 과목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진로 계획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등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교육용 AI를 구매 어려움이 있는 일부 학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저소득층 학교에도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학습해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빌 게이츠는 AI가 지닌 문제성과 위험성이 있지만, 정부가 민간 부문과 협력해 위험을 제한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기술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드러나고 있는 AI의 신뢰성 문제는 2년 이내, 혹은 훨씬 더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새로운 기술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전 세계는 AI의 단점이 장점으로 훨씬 더 크도록, 그리고 거주 지역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제를 정립해야 한다. AI의 시대는 기회와 책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희망적인 관측과 함께 글을 마쳤다.

샘 알트만 오픈 AI CEO는 17일 ABC와 인터뷰를 진행해 AI가 사회에 미칠 영향과 위험성에 대해서 AI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를 재편할 것이며, "인류가 지금 까지 개발한 기술 중 가장 위대한 기술"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샘 알트만은 인류가 AI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는 규제 당국과 사회 모두가 챗 GPT에 관심을 가지며 피드백을 제공해야 AI가 인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를 억제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그는 정부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트만이 AI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허위 정보의 확산과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우리가 설정한 안전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AI를 악용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사회가 이를 어떻게 통제할지 생각해 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

다"고 말했다.

현재 챗 GPT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환각 현상'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알트만은 이에 대해 "이전 모델은 부분적으로 알기보다는 연역적 추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 GPT-3.5에서 GPT-4로 넘어오면서 추론 능력은 향상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GPT가 내놓는 답변을 주요 출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사용자가 답변을 다시 확인하도록 권장했다.

알트만은 가까운 미래에 AI가 일부 일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시기가 얼마나 빨리질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인류는 몇 세대에 걸쳐 주요 기술 변화에 훌륭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변화가 한 세대가 아닌 몇 년 안에 일어난다면, 이러한 변화 중 일부는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챗 GPT가 인류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창의력은 무한하며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 이코리아 박성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축제·공연 소식



블루어리 탐탐대 펨 크롤링 투어

- 기간 : 2023-06-19(월)~2023-11-19(일)
- 장소 : 톨브로이, 주든, 프라하993 등
- 주최 : 부산관광공사
- 입장료 : 990원



블루어리 탐탐대 양조장 투어

- 기간 : 2023-06-24(토)~2023-11-25(토)
- 장소 : 톨브로이, 프라하993
- 주최 : 부산관광공사
- 입장료 : 19,990원



별바다부산 나이트페스타

- 기간 : 2023-07-01(토)~2023-10-29(일)
- 장소 : 다대포해변공원 등
- 주최 : 한국관광공사, 부산광역시
- 입장료 : 프로그램 별 상이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매직서커스

- 기간 : 2023-09-02(토)~2023-10-29(토)
- 장소 : 스포월드 꿈나래어린이극장
- 주최 :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 입장료 : 프로그램 별 상이



청년의 날

- 기간 : 2023-09-14(목)~2023-09-20(수)
- 장소 : 부산 영화의 전당 등
- 주최 : 국무조정실, 부산광역시, 청년재단, 부산경제진흥원
- 입장료 : 무료



부산국제공연예술제

- 기간 : 2023-09-22(금)~2023-09-24(일)
- 장소 : 금정구 온천천 일원
- 주최 : 금정문화재단
- 입장료 : 무료



영도다리축제

- 기간 : 2023-10-13(금)~2023-10-15(일)
- 장소 : 아미르공원, 영도 일원
- 주최 : 영도구청
- 입장료 : 무료

숨막혀오는 대기오염

공기 속 위협과 우리의 선택



▶푸른 하늘의 날 포스터

▶사진출처 - 대한민국 정부



▶지구온난화 포스터

▶사진출처 - 한국언사이클 협회



▶온실가스 방출

▶사진출처 - SK 하이닉스

푸른 하늘의 날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채택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이다.

지난 2019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기후 행동정상회의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오염에 대처하기 위해서 '푸른 하늘의 날'을 최초로 제안했고, 이에 공감한 세계는 그 해 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채택했다.

그후 1년 뒤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이날을 법정 기념일로 반영하고 매년 9월 7일에 대기오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가 함께 실천할 것을 독려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의 중요성과 대기오염은 세계 각지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기환경과 기후변화의 중요성

대기환경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다. 대

기환경은 대기 중의 공기 조성, 오염 수준, 기후 변화 등을 포함하며, 이는 인간의 건강과 다양한 생태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후 변화, 대기 순환과 오존층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

생태계와 대기

인간은 대기를 숨쉬며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 중의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중대하다. 공기 중의 유해 물질이 코로나 19같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과 질환 등과 관련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대기는 지구 생태계의 일부이며, 식물, 동물 및 미생물에 중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는 광합성에 관여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기반이다.

수중에 있는 박테리아들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매체이다. 이처럼 대기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생태 피라미드의 다양한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제공자다.

순환과 변화

대기는 대기순환을 일으킨다. 대기순환은 지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기상 현상을 말하며, 이는 온도와 기압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공기와 온도의 변동이 발생하고 날씨를 형성한다.

또한 대기가 만들어내는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해 지구 표면의 생명체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구의 기온과 기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 활동으로 인해 증가하는 온실가스 농도는 지구 온난화의 기후 변화를 가속화시키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기오염과 환경 파괴

산업 활동, 교통, 에너지 생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오염은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대기 중의 오염 물질은 대기 중립화, 산성 비, 스모그 등을 유발하여 식물, 동물, 물질 등에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극단적인 기후 현상 그리고 생태계 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 여러 현상들이 경제와 사회 등 인간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

온실가스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 후 지구의 대기로 방출되는 열을 잡아두어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러 인간의 산업활동, 에너지 생산과 교통 발전에 의해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배출되면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가속이 불을 붙였다.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며 이는 극지방의 빙하와 빙산들이 녹는 것을 가속화하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침수한 해안 지역, 해안 도시의 위협성을 증가시킨다.

극단적 기후 현상

최근 사계절이 희미해진다. 뉴스처럼 극단적인 기후 현상은 지구 온난화가 심해질수록 기후 현상이 더욱 빈번해지고 강도

가 심해지고 있다. 이는 강한 폭염과 폭우, 가뭄과 강풍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프라 파손, 농작물 피해,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강한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농작물 피해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 현상은 인간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온난화로 인한 식물과 동물의 분포와 서식지가 변화하고, 식물의 광합성이 증가하면서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토양 생태계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생태계 내의 종들 간의 상호작용에 변화가 생긴다.

대응과 전망

이러한 이유로 대기환경은 지구 생태계와 인간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활을 위해서는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기후변화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문제로, 국제적 협력과 개인 및 단

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 친환경 기술 개발, 탄소 배출 감소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들의 건강한 지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파리 협약과 같은 협약들이 체결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각국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 향상, 산림 보호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노력으로도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환기이다. 건강과 대기를 위해 하루에 세 번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환기를 시켜 주자.

두 번째는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하기이다. 대기오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 배기가스이다. 그러므로 자동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자전거를 이용해 대기오염을 줄이는 습관을 가져 보자.

자료출처 :
가라강살생관 - 기후변화에 대해서
경북그린산단산업단지 - 기후변화 사례
기후변화홍보포스터 - 지구온난화란?
김우진 수습기자

'오래된 것들'의 유행

힙한 전통문화, 함께 즐겨봐요



▶이날치벤드

▶사진출처 - 'Feel the Rhythm of Korea' 영상



▶꽃감 합쌀떡

▶사진출처 - 롯데백화점



▶국립대구박물관 브랜드 문화 상품

▶사진출처 - 국립대구박물관

살날과 함께 대표적인 명칭인 추석, 올해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번 달 28일 이번 추석이 다가온다. 추석이면 가족과 다 같이 모여 웃음꽃도 하고 맛있는 전통 음식을 먹는 추억들이 떠오른다. 예전에는 추석과 같이 큰 명절에 전통 놀이나 음식을 즐기곤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 대학생들 주변에서 전통문화가 유행이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왜 전통문화가 유행하게 됐는지, 유행하는 전통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뉴트로

'레트로'란 추억이라는 뜻의 'Retrospect'의 준말이다. 과거의 추억이나 전통 등을 그리워해 그것을 재현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레트로라는 용어는 197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 저널리스트들이 처음 사용했다. 이후 영국을 통해 영어권 국가까지 확산하면서 패션, 인테리어,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레트로가 등장했다.

이전 오래됐지만 새롭다는 의미로 뉴(New)와 레트로(Retro)를 결합한 '뉴트로(Newtro)'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이 문화는 50년대 미드 센추리 문화, 60~70년대 히피 문화, 80~90년대 아날로그 감성, 가깝게는 21세기 초입의 비교적 새로운 00년대 문화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현재 Z세대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문화라면 시대에 상관없이 새롭게 받아들여하는 점이 뉴트로 열풍의 특징이다. 그렇게 Z세대들은 소위 '힙한 전통문화'를 만들어 간다. 요즘 유행하는 힙한 전통문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할매니얼

숙, 흑임자, 인절미, 팥, 단호박 등은 어르신들의 간식으로만 여겼던 음식이다. '트렌디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전통음식

재료 뉴트로 열풍을 타고 Z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흑임자·숙 라떼, 꿀 인삼빙수, 인절미 아이스크림 등 전통 음식을 현대적인 감성에 맞게 재해석한 디저트와 음료들이 앞다퉈 출시된다. MZ세대는 '할매인맛'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해당 제품에 대한 사진과 후기, 심지어 직접 만든 레시피까지 공유하고 있다. 이를 일컬어 '할매니얼(할머니+밀레니얼 세대)'이라고 부르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신선하고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Z세대들에게 전통음식은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튀어 보이기까지 한다. 식품업계 전문가들은 '할매니얼' 식품의 인기가 당분간 식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음악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팝. 이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 중 하나는 '전통문화의 재해석'이다. 2018년, 그룹 방탄

소년단이 발매한 'LOVE YOURSELF: Answer'의 타이틀곡 'IDOL'의 가사에는 '명기덕 콩 더러러'나 '얼썩', '지화자 좋다' 등의 궁거리장단과 국악에서 흥이 날 때 넣는 추임새 부분이 들어갔다. 뮤직비디오 속에선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인 팔각정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국악과 케이팝의 묘한 조화를 보여 주는 이 곡은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아 재해석된 한국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렸다.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제작한 한국 관광지 홍보 영상인 'Feel the Rhythm of KOREA(한국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시리즈 또한 한국 전통문화와 현대적인 감성이 잘 어우러진 결과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홍보 영상 속 음악을 담당한 퓨전 국악그룹 이날치의 '벌 내려온다'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전통음악이라고 하면 그저 지루하게 여겼던 고정관념을 깨고, 현대적인 연주 방식을 더해 색다른 분위기의 음악을 들려준다. 덕분에 이날치는 각종 광고를 섭렵하며 국악

의 흥겨움을 바다 너머 해외에서까지 퓨전 국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패션·디자인

요즘은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걷는 것에 대한 부담도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거부감을 낮추는 데는 패션업계의 유행이 한몫했다. 2022년 제28회 미국 배우조합상(SAG)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정호연 배우는 시상식에 한국 전통 머리 장식인 빔기를 달고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프랑스에서 열린 프레드 행사에 초대된 가수 장원영은 조선 왕실의 장신구인 봉황 장식의 비녀를 꽂고 등장해 화제가 됐다. 일상에서도 철릭 윌프스나 우리나라 전통 배자를 변형한 자켓처럼 한복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의류가 2030세대 사이에서 점점 언급되기 시작했다. 일상에서 늘 지니고 있는 소품에서도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늘 눈길을 끈다. 한

국 전통 매듭이 조그만 키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임금이 시무복으로 입던 정복이 곤룡포의 자수에 영감을 얻어 새롭게 디자인된 에어팟 케이스도 인기다. 이렇게 일상에서도 전통문화를 신선하게 재탄생시킨 굿즈들은 Z세대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마치며

우리의 전통문화는 있는 그대로 큰 가치가 있고, 아름답다. 그렇기에 있는 그대로만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문화에 개성과 감성을 불어넣어 이전과 사뭇 다른 이미지로 재탄생하는 것은 전통문화도 재밌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뛰어넘어, 또 다른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앞으로 더 널리 한국의 전통문화가 퍼지기 위해서 일상에 우리 문화를 자연스럽게 녹이고 함께 즐기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다.

정나연 수습기자



기본 좋은 인사

유민영 (식품영양학과·3)

이번 방학에는 휴가철에 물놀이 한 번을 가지 못했다. 핑계라면 핑계지만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워서 휴가를 가지 못했다. 상당히 더운 날씨였으나 물놀이 정도는 갈 계획을 했었다. 그러나 비는 태풍을 동반해 심하게 내렸다. 그래서 특별한 여행 없이 평소와 같이 일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낸 방학이었다.

이번 연도 3월부터 일하는 곳을 옮겼었다. 기존 근무지와는 완전히 다른 결인 곳이다. 평소 아가들을 좋아해서 키즈카페에 지원했고, 합격해서 일하게 됐다. 글을 쓴 시점은 8월 기준으로, 현재는 6개월째 일하는 중이다. 한곳에서 오래 일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 그 경험 덕분에 새로운 근무지에서 적응하는 게 한층 수월했다.

작은 행동이나 캠프 하나하나들은 대부분 우리의 기억에 잘 남는다. 나도 그런 편이다. 20살 때부터 한 가지 아르바이트만 2년 동안 졸곧 해왔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배려하며 챙겨주는 게 습관 아닌 습관처럼 됐다. 이런 행동이 현재 일하는 곳에서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게 해준 바탕이 됐다.

키즈카페 이전에 일하던 근무지는 고깃집이다. 완전히 상반된 느낌이 모든 것이 처음이고 생소했다. 특히 시아가 좋아서 몹이 힘들었다. 그래서 손님들이 뭐가 필요하신지 잘 알지 못했고 허둥지둥 동하게 일수였다. 그러나 이것도 계속 배우고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적응이 됐다. 일을 하다 보니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 하던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

작했다.

보통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같이 와서 놀고 간다. 점심시간 때쯤이면 포장이나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는데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식기를 챙겨드린다. 한 어머니가 배달 음식을 받으시는 걸 보고 쟁반과 식기, 앞집시 등을 챙겨서 가져다 드렸더니 감사하다며 여기는 들어올 때 그 정도로 직원이 친절하고 센스가 좋다고 칭찬을 해주셨다. 일하면서 감사하던 말이 들어왔어도 이런 말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새로왔고 힘들어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계속 일하다 보니 자주 오는 가족을 알 수 있었고 아가들의 안전을 신경 쓰며 조심히 같이 놀아줄 수도 있었다. 나를 기억해 주는 어머니도 계속해서 부탁했고, 무엇보다 아가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 정말 좋았다. 반대로 내가 한 아이를 기억해서 '오늘 누구누구 왔어요?' 라고 하면 '아! 저희 애 기억하세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나의 개인적인 이유이지만 내가 먼저 삼겹살 먹을 정도로 아이 엄마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다시 말해 학부모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이슈가 된 교권 문제도 있었으며 그런 학부모님을 실제로 많이 봤을 때 때문이다. 그런 부류의 학부모님이 있다는 게 아닌 걸 알지만 한 번 박힌 생각은 쉽게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좋은 부모님들을 뵈게 되면서 개인적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우리는 퇴장 결제를 하고 나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를 드리는데 보통 손님들은 '감사합니다.' 이 말에 한마디씩만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다. 하루는 퇴장하시는 아버지 결제를 도와드리고 인사를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세요. 덕분에 잘 놀았습니다.'라며 말씀 해주셨다. 인사를 그렇게 해주신 분은 그 아버님이 처음이었다. 그때 내 퇴근 시간이 다가와서 체력이 바닥나고 지쳤었는데 그 인사에 치유되는 느낌이었는데. 어 그 개가를 나올 때까지만 생각하니, 살아가면서 문득 생각나는 한 줄의 문장이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고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기도 한다. 독서하려고 하는 이유로 바로, 이 때문이다. 마음의 양식을 비축해 두는 것. 그것이 이번 방학 목표였다.

방학 동안 독서를 하면서 내게 작은 변화를 준 책은 <홀로서기 심리학>이라는 책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의 90%는 당신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홀로서기의 시작이다!' 이 글이 적힌 책에서 내 눈에 띄었고,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다.

프롤로그에는 이렇게 쓰였다. "답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면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나를 잘 알고 믿고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수월해집니다. 삶의 중심이 단단하면 타인과 세상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

죽비소리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이지현 (청소년상담심리학과·2)

나의 방학은 늘 끝이 흐지부지하고 빈약하다. 방학이 시작되면 책을 많이 읽어 보려고 다짐한다. 일주일에 3권 읽기와 같은 목표를 세워 봤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평소엔 책보다 드라마를 더 많이 보면 사람이 갑자기 일주일에 책 3권을 읽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달에 1권을 읽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작은 성취감이 모여서 큰 성취를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다.

독서는 나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위로를 주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읽은 즉시 어떠한 깨달음을 주기도 하지만, 살아가면서 문득 생각나는 한 줄의 문장이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고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기도 한다. 독서하려고 하는 이유로 바로, 이 때문이다. 마음의 양식을 비축해 두는 것. 그것이 이번 방학 목표였다.

방학 동안 독서를 하면서 내게 작은 변화를 준 책은 <홀로서기 심리학>이라는 책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의 90%는 당신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홀로서기의 시작이다!' 이 글이 적힌 책에서 내 눈에 띄었고,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다.

프롤로그에는 이렇게 쓰였다. "답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면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나를 잘 알고 믿고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수월해집니다. 삶의 중심이 단단하면 타인과 세상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

던 어른이 바로 이런 포용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어른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글이다.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고 성숙해지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어른스러운 척 흉내 내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실수와 감정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나를 평가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방법에도 다음을 제시하였다. "자 기 평가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바라봐 주기. 또, 내가 나를 대할 때는 나 자신을 엄격한 관사의 눈이 아닌, 어린아이를 대하는 따뜻하고 바른 부모의 눈으로 바라봐 주기" 나는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본 적이 없었다. 타인의 실수는 따뜻한 시선을 보내면서도, 나 자신은 엄격한 관사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나의 통제력을 벗어난다. 그래서 불행함, 억울함, 불쾌함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 책에선 감정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분노를 느끼는 것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행동에 옮겼을 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에만 잠겨 있기를 선택했을 때 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솔직해져도 됩니다"라고 했다. 내가 느끼는 무기력함도

결국엔 감정이다. 내가 무기력함에만 빠져있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무기력한 사람이 됐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길러서 삶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것. 그것이 바로 홀로서기를 위한 방법이다. 내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은 감정과 생각과 행동 충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감정에 의미 부여하지 않으면 큰 의미 없이 지나간다. 조금씩 감정을 해소하려 하지 않고 그 감정을 수용하는 것이 변화의 첫 걸음일지도 모른다.

책 1권을 읽는 것만으로 삶이 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책은 삶은 습관으로 이루어지고, 습관은 지속적인 노력으로만 변화한다고 말하고 있다. 변화는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지만,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고 때때로 긍정적인 생각은 때때로 내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이 늘 힘들고 우울한 것만은 아니었다. 작은 것에 행복을 느꼈던 날들을 나는 잊고 살았다. 사소한 것에 소홀하면 삶이 지겨워진다. 반복적인 일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어떤 날도 오늘과 같은 날은 없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느껴볼 수 없는 오늘날이 가진 특별함이 있다. 오늘만 난 사람, 나누었던 대화, 점심 메뉴,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진다. 나는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세상을 부드럽게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도 지닌 사람이다.

이달의 명언

삶은 당신의 무사안일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한다.
—널 도약드 워시

가장 강한 용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용이 살아남는다.
—작스 다윈

네 컷 만화

변화의 시작



목회 칼럼



최민구 교목실장

사람은 누구나 변화의 욕구가 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 삶을 살고픈 욕구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변화에 대해 부정적이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안정의 욕구나 손에 잡히지 않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공동체 내에서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영향력을 잃는 것에 대한 방어기제 등이 있다. 그러기에 변화에 적극적인지도 않고 때로는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또 변화를 시도했다가도 원상

후츠파 정신으로 변화의 미래로 나아가자

대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만큼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단하는 것만이 변화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해 보자.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변화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내가 변화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답은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쉬운 답에 당황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작심삼일도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반응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단의 뜻을 알면 생각이 달라진다.

결단(決斷)의 한자를 풀어보면 '결정할 결(決) 자에 '끊을 단(斷)' 자를 쓴다. 무엇을 끊어야 할지 결정해 실천하는 것이다. 사실 결(決)자는 '재발을 무너뜨려 물길을 터 준다.'는 뜻도 있다. 다시 말해 고정화된 과거의 인습을 끊어냄으로써 새로운 길을 터주는 것이 '결단'의 의미라 하겠다. 그러므로 변화하기 위해 필연적인 것이 결단이다.

그렇다면 과연 변화를 원하는 이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습관을 끊어낼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회가 진실로 나아갈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밟는다고 했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격렬한 저항을 받는다. 셋째,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가 새 시대에 통용되는 존재로 변화해 자리매김 하기까지 반드시痛苦(고통)를 겪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경과 도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변화의 승패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때로는 고통과 실패의 예를 너무 자주 경험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나를 것이 없다는 잘못된 믿음이 생긴다. 자신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못 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무엇을 하든 항상 실패할 운명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성공해서 무엇이든 이루기를 바라다면 절대 그런 잘못된 믿음이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믿음은 우리를 기운 빠지게 하고 행동할 힘을 파괴해 버린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파괴적인 마음 자세를 '학습된 무능'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어떤 일

을 실패를 하고 나면, 노력을 쓸데없다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학습된 무능을 느끼며 낙담하게 된다.

이스라엘은 '후츠파' 정신이 있다. 히브리말로 '무례하고 공격적인 사람 또는 행동' 혹은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 또는 행동'을 뜻한다. 이 속에는 지독한 낙관주의가 있다. 이스라엘은 중동국가들의 연일 미사일 공격이 이어질 때도 아이들은 매일 걸어서 등교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 테러가 벌어진 1월 1일 저녁,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테러에 울조러들지 말고 일상을 즐기자는 글을 올렸다. 주변을 경계하되, 평소와 같이 외출하면서 일상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위험은 영속적이지 않고 잠깐이기에 큰 문제가 닥쳐도 꿈을 향해 걷는 일상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후츠파'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다.

이스라엘 '후츠파 정신'에 담긴 지독한 낙관주의는 실패에 관대한 문화와 관계가 깊다. 어떤 일을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비글라스는 실패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패의 제한적 원인을 냉철히 따지는 것이라고 했다. '나'와 '실패한 프로젝트'를 구분하고 실패의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나의 강점을 키우는 행동을 뜻한다. 이 속에는 지독한 낙관주의가 있다. 이스라엘은 중동국가들의 연일 미사일 공격이 이어질 때도 아이들은 매일 걸어서 등교했다.

실패의 적은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은 실패했기에 실패자로 남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실패가 또 다른 실패의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부정적 신념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떠는 것이다. 게다가 이 실패가 영원히 계속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개인과 공동체를 하얏음 울퉁불퉁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제는 결단하자. 이스라엘처럼 '후츠파' 정신으로 두려움을 돌파하자. 지독한 낙관주의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자. 위험은 잠깐이나 하나뿐이 허락하신 우리의 길을 멈추지 말고 걸어가자. 위기를 압도하는 자세로 달려가자. 그렇게 변화의 미래로 걸어가자.

사설

무법지대가 된 교실

과거에는 교사가 학생을 처벌하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일이 빈번했다. 이를 적극적으로 막는 이들 또한 없었다. 그때 그랬다. 교권이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갔을 때였고, 교사의 영향이 학교 안이 아니라 바깥까지도 통하던 때였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학생에게 속제를 내는 것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현재 교사들의 실정이다. 특히 만만한 20대 젊은 초임 교사들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대학생이 되고, 점점 사회로 나갈 나이가 되다 보니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학교로, 현장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번 참사에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마음이 불편했다. 당장 내 친구가 그런 학급을 맡게 될 수도 있는 현실이다. 나도 이들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5만 명의 전국 교사들이 5주 연속 추모 집회를 가졌다. 뜨거운 아스팔트 도로도, 내리쬐는 햇빛도, 30도를 넘는 폭염도 이들이 국회 앞에 모이는 것을 참하 막을 수는 없었다. 현장에 세워진 차량에는 '무법지대에서 교육 안전지대로 국회는 행동하라!' 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았다. 우리는 무법지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흐름을 읽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은 '옛날처럼 다시 교사가 학생을 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게끔 하자'거나 '이래서 애들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는 등의 무식한 말을 한다. 교권을 위해 폭력을 살피지나. 너무 일차원적이고 무식한 발상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폭력이 아니다. 다시 옛날과 같은 폭력 교사를 양성하는 게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제공함과 더불어 작은 사회를, 친절과 관용의 중요성을 알려 주고 싶을 뿐이며, 일부 문제 학생들을 제재할 수도 없고, 교육할 수도 없는 환경을 바꾸고 싶을 뿐이다. 당신의 아이들이 무법지대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면, 정녕 그 교실에 보내겠는가?

피해 교사의 49세가 있는 9월 4일을 교사들은 공교육 범혼의 날로 정하고 재량휴업일을 시행하려 했으나, 정부는 이를 불법 행위로 지정하고 4일 시위에 참여한 교사들을 파면·해임시키겠다고 말했다. 여전히 교육 현장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무시하는 흐름이다.

그러나 변화는 늘 사건 뒤에 일어난다.

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고, 소수의 관심은 그저 관심에서만 그치기 때문이다. 지금이 아니라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무시당하더라도 들고 일어나야 한다. 움직이면 변화한다. 아무리 무거워도 밀리지 않는 바위는 없다고 믿는다.

언젠가 인류가 멸망하고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것이 한 줌 재로 돌아갈 그 날에도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는 사랑을 할 것이다. 아주 많은 이들이 남김 사랑의 말은 고요해진 지구를 윙크처럼 바람처럼 떠돌 것이다. 사랑은 남는다. 사라지고 사라져도 여기 있을 우주처럼.

최전선 작가의 해가 지는 곳으로에 살린 작가의 말 일부다. 다정함은 늘 우리를 땀땀다. 하나의 다정도 또 하나의 다정을 낳고, 널리널리 퍼진다.

그러다. 사랑과 다정과 친절은 남는다. 우리는 늘 다정해야 한다. 친절함 웃음을 보여야 한다. 따뜻한 마음을 이길 수 없는 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 역시 다정을 무기로 나를 무너뜨려야 하는 그 모든 것과 싸울 것이다.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동서만평

글·그림 김은아



■ 학생 인터뷰 - 웹툰학과 송지운 학생

부산 구치소에서 벽화를 그리다!

봉사활동을 통한 새로운 도전



▶ 송지운 학생 사진



▶ 당시 그린 벽화 도안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벽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벽화 봉사 활동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궁금해 우리 대학 웹툰학과 송지운 학생과 직접 인터뷰해 봤다.

Q.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웹툰학과 2학년 송지운입니다.

Q. 부산구치소 벽화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됐나요?

A.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고, 1학년 아이들과의 교류도 너무 하고 싶어 참여하게 된 것이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제 바람대로 아이들과 교류가 잘 이루어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디지털 그림이나 스케치북 그림이 아닌, 벽에 색을 입힌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도 있었습니다.

Q. 평소에도 벽화를 그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A. 도전할 기회를 잡지 못해 이번 활동이 처음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배워서 벽화를 본격적으로 배울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Q. 벽화 그리기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A. 벽화 그리기는 상의 후 르프를 교수님께 들고 가서 조언을 받고, 그렇게 완성

된 도안을 들고 벽화에 어울릴 수 있게 다시 고쳐서 그리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도안을 제작할 때, 주제 선정부터 색깔 잡기까지의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오랜 시간의 피드백에 지치기도 했지만 즐거움이 더 컸기에 나머지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벽화를 그리면서 평소엔 그림을 그리는 것과 다른 점을 느껴보셨나요?

A. 평소엔 채색하던 방식과 매우 달랐어요. 여러 번 덧칠해야 한다는 것과, 한번 그리면 더 이상 수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또 선을 탄다는 것과 색을 조합할 때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또다시 새로운 매력과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평소 수정을 자주 하는 편인데, 한번에 완벽하게 그리는 느낌은 또 다른 느낌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Q. 평소 그림은 어떤 편이신가요?

A. 평소엔 펜으로만 그림을 완성하는 선화 스타일로 그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색도 한 가지만 쓰거나, 아예 중요부분에만 집중해서 채색하기도 합니다!

Q. 7월이면 한창 더울 여름이었을 텐데, 많이 힘들진 않으셨나요?

A. 저희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그늘쪽 작업이라 수월했지만, 1학년 아이들은 야외 작업을 하게 돼 정말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감사한 배려와 늘 대기하고 있는 수분 보충음 음료들이 있어

무사하게 잘 끝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물감이나 붓 같은 재료 지원과, 학과만의 앞치마도 만들어주시고 수시로 간식거리도 제공해 주셔서 봉사 활동 내내 즐거웠습니다.

Q. 봉사 활동 당시 벽화 그리는 데에 영감이 되었던 원인은 무엇인가요?

A. <색을 입히는 아이들>이라는 느낌으로 밝고 발랄하게 가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아트센터에서 일했을 때, 화려한 색으로 즐겁게 칠하는 것이 기억에 남아 영감으로 삼았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최대한 밝은 느낌과 희망적인 느낌과 동화같이 포근한 느낌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Q. 구치소 내부 벽면에 벽화를 그렸다고 들었어요. 구치소라는 타이틀 때문에 조금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A. 처음엔 긴장도 많이 했지만, 너무나도 상냥하신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 그런 걱정은 금방 사라졌던 것 같아요.

Q. 봉사 활동을 통해 깨달은 점에 대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벽화라는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매력적이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닌, 보이는 건물에 이야기를 그려냄으로써 전자기기가 없어도 이야기와 즐거움을 주는 점이 정말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또 작업하고 싶을 정도예요.

정은영 수습기자

■ 학생 인터뷰 - 캠퍼스아시아학과 박성준 학생

외교부 장관상의 쾌거를 이룬다

'자기주도경험학습' 교과목에 참여한 박성준 학생



▶ 박성준 학생



▶ 박성준 학생의 유튜브 영상

재미있는 콘텐츠가 난무한 이때, 그저 살다 보면 게을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하지만 박성준 학생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자기주도경험학습'이라는 교과목을 통해 관심 분야를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해 수상까지 하는 등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 냈다. 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Q.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캠퍼스아시아학과에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는 4학년 박성준입니다.

Q. 올해 1학기 '자기주도경험학습' 교과목을 수강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수강하게 되셨나요?

A. 코로나 이후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신만의 취미 없이 유튜브, 드라마, 영화만 들여다보는 시청 동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런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Q. 그렇다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A. 제가 좋아하는 취미나 여가 활동 중 운동, 악기, 요리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왕초보 단계에서 초보단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제 경험을 전자책에 담았어요!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영상도 같이 실었습니다. 3개의 파트를 말씀드리자면 운동과

트는 제가 타바타운동법, 턱걸이로 지금의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었던 노하우를 담았고, 요리 파트에서는 제가 자주 만들어 먹는 간단한 요리가 있어요. 이런 요리법들을 숏츠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악기 파트에는 제가 기타를 치게 된 계기부터 기타를 고르는 법, 기타 치기 전에 준비사항을 위주로 정리했어요. 마지막에는 실전 연습으로 '내에게 난, 내에게 난' 노래같이 쉽게 사람들이 연주할 수 있는 강습 영상을 담았어요.

Q. 공모전 수상도 하셨는데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준비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A. 이번엔 전자책을 제작하면서 영상 편집능력이나 기획 능력을 기르려고 외교부에서 주최한 '2023 해의에서 겪은 사건-사고 공모전'에 참여했어요. 외교부, 영사 조례법 또 영사콜센터 등을 쉽게 소개하려고 재미있는 뮤직비디오 스타일로 기획했어요. 친구랑 아이디어 회의 할 때 등산하면서 회의하기도 했어요. 음악 녹음하고 제작할 때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웃음) 그래도 친구랑 정말 재밌게 프로젝트 과정을 끝냈어요. 운이 좋게도 대상인 외교부 장관상까지 받아서 정말 감사했어요. 상을 받기 위해 서울 외교부에서 수상을 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Q. 이번 2학기에도 신청을 하셨어요. 이번 학기에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려 예정인가요?

A. 이번 학기에는 저번 학기에 운동, 요리, 악기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악기 분야를 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매주 사

람들에게 더 쉽게 기타를 칠 수 있는 코드를 설명해 드리고 노래하는 영상이나 연주 영상도 올리면서 유튜브 채널을 키워나가고 해요. 그리고 작곡도 공부하면서 노래를 몇 가지 제작해서 여러 공모전에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Q. '자기주도경험학습' 교과목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 것 같나요?

A.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수업은 보통 제가 학교까지 가서 수업을 들어야 하잖아요.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매주 1시간에서 2시간 시간을 소비해서 수업을 들어야 하지만 자기주도경험학습은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분야에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집중할 수 있어서 다른 일정처럼 조율할 수 있다는 부분이 편하고 효율적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Q. '자기주도경험학습' 교과목을 수강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A. 계획을 짜고 매주 조금씩 계획대로 실천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마지막 평가 때 왜 계획대로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써야 하고 점수도 낮을 확률이 높아서 계획을 잘 짜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에 자기주도경험학습을 함께 참여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자기주도경험학습에 같이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자기 발전에 이바지해 봅시다! 파이팅!

정연연 수습기자

성경 속 음식 이야기 - 고기



▶고기

▶사진 출처 -네이트 뉴스

#성경의 육류 규정

구약 시대에는 정결법에 따라서 정한 것만 먹을 수 있다. 가장 흔히 먹는 육류는 메추리나 닭 등의 조류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불평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 주신 메추리기는 우리나라의 메추리기와 동일한 종이다. 닭은 가축화가 쉽고 닭갈비를 제곱해 줄 뿐 아니라 그 시대의 새벽을 알리는 시계의 역할을 했기에 고기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

조류 이외에 대표적 육류는 소, 양, 염소였다. 돼지는 굽이 있으나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부정된 짐승이라 먹지 않았다. 개 또한 잡식성이라 돼지처럼 지저분하고 혐오스러운 짐승으로 여겨졌다. 반대로 소, 양은 정결한 짐승으로 여겨져 고급 식재료로 여겨졌다. 그중 양과 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성경 속 양이 나타내는 상징

성경에서의 양, 혹은 어린 양은 흔히

제사나 회생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언한 구절로 양을 통해 그의 회생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양은 순진하고 운순하고 흰 털로 인해 정결성과 깨끗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순종과 헌신을 상징하는 동물로도 여겨진다. 이는 예수를 양떼의 목자로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백성을 보살핌으로써 구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도 이어진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와 상징성을 통해 양은 성경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하나님의 다양한 신앙적 개념을 나타내는 데 사용됐다.

#양고기의 가치

성경 속에서는 양고기가 다양한 의미와 상황에서 언급된다. 양고기는 제사와 희생, 음식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짐승인 양을 고급 식재료로 여겨졌고, 그 중 양 고기는 최고의 부위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양은 꼬리가 매우 굵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책에서는 '가나안 지역의 양은 꼬리가 엄청나게 굵어 목자들이 작은 수레를 만들어 달아놓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기름진 양꼬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양의 힘과 능력이 모여있는 곳으로 생각해 가장 귀한 부위로 여겼다. 그로 인해 양의 기름진 꼬

리는 손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식사로 취급되고 성전의 회생 제사에 바쳐질 정도며, 최후의 만찬에 마지막 식사에 오를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

#양고기로 만들 수 있는 성경 속 음식들

제일 기본적인 음식은 바로 구워 먹는 것이다. 양고기를 구워서 먹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음식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무교절 축제인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고기를 구워서 먹는 것이 관행이다.

이를 참고로 성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며 양고기를 먹는 모습이 적혀 있다.

다음으로 양고기 스테이크. 양고기를 재료로 사용해 스테이크 요리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이 말고도 양고기 케밥 등 성경에서는 양고기를 요리하여 먹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식사의 형태로 사용됐다.

또한 제사와 예식의 일환으로 양고기가 사용되기도 했다. 양고기를 성찬으로 드러거나 예배에서 사용되는 모습이 묘사되기도 했다. 이러한 제사식에서 양고기를 사용해 죄의 속죄와 하나님께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소의 상징성

소 또한 양과 비슷하지만 다른 다양한 상징성이 있는데, 성경에서의 소는 농경,

노동과 관련된 동물로 나타난다. 소는 밭을 갈아주는 일, 경작, 이송, 운송 등 농업과 관련된 작업에 사용됐다. 이를 통해 소는 일상적인 노동과 수고를 상징하며, 또한 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데 사용됐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를 금속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경우 소를 불순종과 다른 신에 대한 숭배에 상징으로 만들어져 불순종, 타락, 악의 상징으로 사용됐다.

이처럼 성경에서 소는 농업, 노동, 제사, 숭배, 비유, 선과 악 등 다양한 의미와 상징성을 가진 동물로 다양하게 등장했다.

#성경에서의 소고기

성경에서는 소고기를 제사와 희생의 요소로 사용해 신앙적인 의미도 나타내지만, 음식으로 먹는 경우도 다양하다. 음식은 인간의 신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생존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고기는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식품 자원으로 가치를 가진다.

또한, 소는 종교적 상징의 가치를 지닌다. 유월절이나 다른 종교적 행사에서 소고기의 사용은 신앙과 의식의 표현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농업과 노동에 상징으로서 사회와 공동체의 발전과 연결된 사회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소고기를 재료로 제사와 희생에

사용하는 것으로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소고기 요리와 유월절

소고기 요리 또한 양고기와 비슷하게 성경에서 음식 제물이나 회생을 준비할 때 사용하는 재료 이외에 2차적으로 가공된 음식이나 레시피로 언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기념일 중 하나인 유월절에서 양고기처럼 소고기를 이용하여 스테이크 요리를 만든 뒤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인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는 내용이 있음으로 보아 중요한 행사때나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사용한 음식 재료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와 돼지

지금 시대에 돼지 사육은 그렇게 비위생적이지도 않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당신이 만약 '우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결속 감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돼지'를 금기시하지 않을 수 있는 가치가 반영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성경 말씀 따라 먹고 안 먹고는 사실 어떤 것이 답이라고 할 수 없다.

자료 출처 : 사우던크로스 기독교문 -아브라함 박사엔 무엇이 있었을까 참평안 -바이블다큐 티스토리 -코이네자료실/실교자료 김우진 수습기자

DSU 동서대 대학신문사

동서대신문사 ▼

|수습기자 모집 광고|

수습기자 모집 일정

- 일반기자(편입/복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누구나 가능)
- 객원기자(기자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사정으로 인해 여유롭게 활동하고 싶은 재학생 누구나 환영)
- 동서대 신문사에 관심 있는 동서인 누구나 지원 가능
- 지원 : 9월 1일~9월 20일까지
동서대 홈페이지 모집란에서 동서대 수습기자 모집 안내 참조 후 편집국장에게 연락바랍니다.
- 면접 : 개별 연락 드립니다
- 문의 : Tel)320-2141(산학협력관 5609)
010-8575-9649(편집국장)

~9월 20일
수습기자모집

당신의 열정이
캠퍼스를 만듭니다

Made in DSU Press